



최흥만이 최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6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에서 불고기 무료 배식을 하고 있다.

“최흥만, 뒤편 깬 뒤 약혼 발표”

日 스포츠지 보도

‘테크노 골리앗’ 최흥만(26)이 30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K-1월드그 램프리 개막전에 출전한 뒤 약혼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일본 스포츠지들이 21일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닛칸 스포츠’와 ‘스포츠초치’ 등 주요 스포츠 신문은 최흥만이 K-1대회에서 상대 제롬트 밴너(33.프랑스)를 꺾은 뒤 애인과 약혼을 발표할 것 같다고 전했다. 최흥만은 이들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근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있다. 하루하루가 즐겁다”면서 “남자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라고 하면 말하지 않겠느냐”며 웃음을 지었다.

그는 이어 “대회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 말해 K-1 개막전이 끝난 뒤 약혼과 같은 깜짝 발표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닛칸스포츠는 특히 “218cm의 거인이 진화하고 있다”면서 “대위 당시에는 펀치를 제대로 날리지 못하고, 큰 키를 이용해 단발의 무릎 공격에만 의지했지만 타격 기술을 익혀 공격의 폭을 넓히고 무릎 차기도 충분히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KTF 조영주 사장, 지휘자 깜짝 변신



KTF 조영주 사장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깜짝 변신했다.

21일부터 이틀간 옹골리조트에서 진행된 KTF 창사 10주년 전진대회에서 조 사장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나선 것.

그는 10년 동안 KTF를 성장시켜 온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전진대회에서 ‘모스틀리 캄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직접 지휘했다.

조 사장은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멋진 호흡을 보여주며 ‘오페라 카르네 중 투우사의 노래’, ‘라틴초키 행진곡’ 등 두 곡을 임직원들에게 선사했다.

그는 특히 임직원에게 보다 완벽한 지휘를 선보이기 위해 지난 3개월 간 주말마다 개인교습을 받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故 정몽헌 회장 자살 소재 오페라獨 초연



독일에서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자살을 연상시키는 오페라가 초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6월17일에서 7월12일까지 6차례에 걸쳐 독일 브레멘 콘코르디아 홀에서는 3막13장(1시간30분) 짜리 ‘살다보면(Untewegs)’이라는 제목의 오페라가 공연됐다.

작품은 한 대기업의 총수가 자살하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는 내용. 이른 새벽 경영자가 사무실 창문에서 정원으로 몸을 던지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고 정몽헌 회장의 자살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작품은 6명의 젊은 작곡가의 공동 작업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현지 언론들의 호평을 받았다.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촉

- ▲박성수(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씨 장남 유규(히타치 엘지 DS)군 차대연 씨 차녀 모듬양=23일(토) 오후 1시10분 삼부지구 예술의 전당 3층 아이리소홀.
- ▲배오인씨 3남 기호군 고점석(광주서부경찰서 조사씨)씨 장녀 영미양=23일(토) 오전 11시40분 메리드웨딩홀 1층 사파이어홀.
- ▲우중기씨 장남 성욱군 고철(나주중앙중동의원장)씨 차녀 지연(서울상계백병원 의사)양=23일(토) 오후 2시30분 서울 뉴힐태호텔 3층 그랜드볼룸.
- ▲김재열(광주중앙여고 교장)씨 장남 홍록(신용보증기금)군 심천석씨 장녀 현정양=23일(토) 오전 11시30분 삼복회관 무궁화홀.
- ▲김기수씨 장남 성우군 박영근

- (영양 동아전기 대표)씨 차녀 성애양=23일(토)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방웨딩문화원.
- ▲김현구씨 막내 남영군 공중환(전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 사무처장)씨 차녀 신원양=24일(일) 오후 1시 삼부리초리번선센터웨딩홀 2층 데이저울.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 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 ▲비밀기가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939@dreamwiz.com

母子가 함께 모는 ‘사랑의 택시’

김계순(60·광주시 서구 상촌동)씨의 하루는 아들과 함께 시작되고, 아들과 함께 끝난다. 아들과 ‘짜꿍’이 돼 같은 택시를 운전한 지도 올해로 꼭 6년이 됐다.

아들과 어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근무 교대를 한다. 아들의 택시가 집앞에 멈춰선 뒤에야 긴장을 푼다.

“고생 많았지? 별일 없었지? 피곤하잖네 들어가 쉬어.” 밤새 까칠해진 아들의 얼굴이 안쓰러웠는지, 김씨는 조용히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나 같게.” 열쇠를 건네받은 김씨는 택시를 타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운전 조심하세요.” 최씨도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처음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혼자였다. 22년 전 남편 최성봉(당시 나이 43세)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광범한 가정주부였던 김씨는 가정을 책임져야 했다. 아들 둘과 딸은 당시 어린 학생이었다.

“안 되겠다” 싶어, 91년 면허증을 딴 뒤 1년 만에 영업용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가는 길을 몰라 승객에게 물어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 야간시간에는 특히 술에 취한 승객들의 술주

광주 김계순·최현씨 6년째 ‘짜꿍’

“서로 격려하니 피곤한 줄 몰라요”

증을 견뎌야 했다. “요금이 평소 때보다 100원이 더 나왔단다.” 운전이 난폭하다” “건방지게 말대답한다” 등.

심지어 손님들에게 맞기도하는가 하면, 택시강도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해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에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평균 18~20시간을 꼬박 일했다.

지난 2001년, 작은아들 최씨가 갑자기 하던 견축일을 그만두겠다고 나섰다. 어머니에게 “함께 택시 일을 하자”고 제안했다. 조건은 단 하나. 어머니와 함께 같은 택시를 몰겠다는 것이다.

“밤만 되면 ‘혹시 무슨 일이 없을까?’ 걱정돼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직장도 나가서도 교통사고가 날까 조마조마해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일을 마치고 교대하기 위해 집에 도착한 아들 최현씨를 어머니 김계순씨가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김씨도 처음엔 “다른 일을 하라”며 말했지만, 최씨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두 모자(母子)는 파트너가 돼 밤에는 아들, 낮에는 어머니가 12시간씩 교대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

올해로 택시운전만 15년째 해왔지만, 김씨는 아직 “아직도 15년은 더 일해야한다”고 했다.

“안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그동안 모았던 돈도 다 없었고, 빚까지 졌죠. 그래도 조합에서 대출받아서라도 내년에 고생하는 아들에게 개인택시 한 대 사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 것도 사야죠.” 아들에게 택시는 사람의 매개체였다.

/이승배기자 sb54@kwangju.co.kr

비엔날레 직원의 아름다운 시신 기증

선천성 척추장애 앓은 故 정건호씨

“고통받는 환자 위해 써 달라” 유언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근무하던 40대가 자신의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한 뒤 생을 마감했다.

21일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교육정보국제팀 정건호씨(49)가 지난 20일 지방인 심폐중으로 숨을 거둔 뒤 유지에 따라 시신을 전남대병원 해부학교실에 기증했다.

정씨는 선천성 척추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시신이 쓰였으면 한다’는 유언을 가족들에게 남겼다.

지난 97년 광주비엔날레와 인연을 맺은 정씨는 전시팀, 기획홍보팀을 거

치면서 탁월한 업무처리 능력을 선보여온 비엔날레의 숨은 일꾼이다.

그는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제6회 비엔날레 준비에 매달렸으나, 지난 6월 급격한 병세악화로 요양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필름 ‘이세길’로 평론활동을 펼친 그는 지역 진보 미술단체인 광주미술인 공동체(광미공)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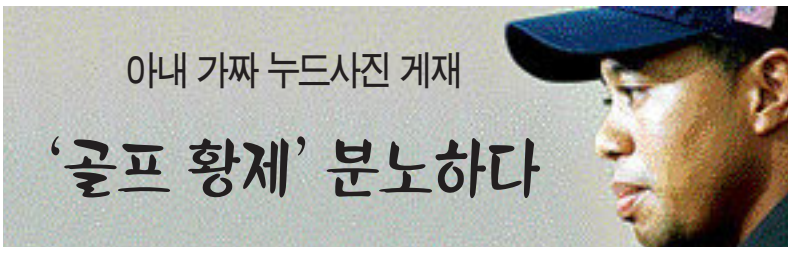
그는 지난 1986년 광주시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에 사회과학전문 서점인 ‘남평서림’을 운영하면서 공안당국의 탄압을 받기도 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관계자는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항상 밝은 모습으로 누구보다도 술선해서 업무를 처리하던 성실한 일꾼을 잃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사후 시신 기증을 원하는 사람은 (재)사망의 장기기증운동본부(02-363-2114)로 연락하거나, 각 대학 병원 해부학교실에 연락하면 장기기증에 동참할 수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아내 가짜 누드사진 게재 ‘골프 황제’ 분노하다

아일랜드 잡지 공식 사과

아일랜드의 한 잡지사와 타블로이드 신문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아내의 가짜 누드 사진을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한국시간) AP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에서 발행되는 ‘더블리너’는 9월호에서 위조된 우즈의 아내 엘리노르 노르데그렌의 누드 사진과 함께 ‘엘린의 사진은 여러 포르노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아이리시 데일리 스타’도 타블로이드관에 “타이거, 누드 사진에 화했다”는 제목으로 엘린의 위조된 누드 사진을 함께 게재에 우즈의 심기를 건드렸다.

우즈는 차다 못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 아내가 모델이었고 비키니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포르노 사이트를 연상시키게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물의를 일으킨 잡지사와 신문사는 “단지 풍자였을 뿐이지만 부적절했다”며 우즈의 가족과 미국팀에 사과했다.

권영배 언론재단 광주소장 선관위 홍보직원 미디어교육

권영배 한국언론재단 광주사무소는 21일부터 이틀간 한국방송광고공사 광주지사 강의장에서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직원 36명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했다.

동강대 교수·학생 ‘사랑의 식탁’ 보해 ‘2006년도 하반기 장학금’ 치매가족협, ‘치매의 날’ 행사 ‘광주자동차부분정비조합’ 개소



광주 동강대 생활복지홍보과 교수와 학생들이 21일 광주 남구 서동 광주공원 인근 광주직업소년(원장 허상희)에 자리 잡은 ‘사랑의 식탁’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음료를 나누며 노년들을 위로 했다.



보해덕천장학회는 20일 광주시청에서 보해장조이언회 이사, 보해덕천장학회 김도식 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고·대학생 등 104명에게 ‘2006년도 하반기 장학금’ 5천300만원을 전달했다.



치매가족협회 광주전남지부는 21일 제13회 세계치매의 날을 맞아 치매가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이사장 백인식)은 20일 오후 광주시 북구 본촌동에 조합사옥을 신축하고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합원과 업체 관계자·각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의실, 225-5631

- ▲광산이씨 치초파 증중회 이사회(회장 이인기) 모임=23일(토) 오전 11시 충정회관. 365-1626, 361-6688
- ▲정흥위씨 재광 청·장년회(회장 위승두) 분기회=26일(화) 오후 6시 30분 한우마을. 011-602-9727

향우회

- ▲재광 나주향우회(회장 최영관) 이사회=26일(화) 오후 6시30분 수원왕갈비.368-2300
- ▲재광 영암 미임면 향우회(회장 김재균) 모임=27일(수) 오후 7시 해태촌.010-8822-5425

넓고 편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초전)
대표: (062)515-4488

모집

- ▲남구 레고교육센터 교육생 모집 =베이비집(12~48개월)·스킬과정(5~7세)·테크닉과정(초등~중1·2년)·로보과정(초등 2년 이상·중학생) 교육생 모집.분선동 삼익2차 APT열.문의 654-4113
- ▲Philo통기타 동호회=40세 이상 남녀. 매월 1회 정기발표회, 초보자도 가능 019-660-3388

부음

- ▲정건호(광주비엔날레 전시부 교육홍보담당)씨 별세=발인 23

일(토) 전남대 병원 영안실 6호실.

- ▲조오례씨 별세 김승철(사업)·맹목(사업)·계용(대한필프 과장)·경송(가야자동차)·동성(신한은행)씨 모친상 신광하(목포MBC 기자)씨 별모상=발인 23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515-4488
- ▲정병동씨 별세 한성·효성·학성·윤성·광성·만자·경자·삼자·영자씨 부친상 김중철·김병관·정범모·장기원씨 부부상=발인 22일(금)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250-4407
- ▲조순임씨 별세 유영식·영규·영성·영현·영심·현미씨 모친상=발인 22일(금)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250-4410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정계공원
가족님길모 특별분양
문의 (062)521-1100

장미, 들, 연꽃, 자개, 일본 행사전문업체
객의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희는
※경제 최고의 수상 기업
※주최: 연일수원, 협일수원 대호빌
간사이론 환경 및 지리적 우수한 경치
-주최처: 무등지(2000) 무등공원 입구
※주최처: 무등공원, 무등공원
☎(062)515-4488